



점점 굳어가는 “아람코IPO 대신 SABIC매각”

- ▶ “사우디 아람코 IPO자문단 해체 → 국부펀드의 \$110억 조달”이 해외언론 통해 연이어 보도. 결국 아람코는 SABIC 매각을 통한 NEOM 프로젝트로 계획변경 하는 듯. 기존의견대로 ‘지정학적 유가상승’ 모멘텀 종료

사우디 IPO 자문단의 해체를 보도한 해외유력언론

사우디, 아람코 IPO 계획 중단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디의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를 국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준비하던 자문단도 해산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이를 공개할 수가 없어 우선 연기하고 이어 중단한다는 식으로 단계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 광물부 장관은 23일 “기업공개의 시점은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된다. 아람코의 기업공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중단설을 부인했다.

자료 : 이코노믹리뷰(2018년 8월 24일), SK증권

- 지난 7/29 Energy Snapshot “SABIC 매각으로 아람코IPO 취소 가능”이라는 내용을 작성했었습니다

- 요약하자면 국내외적으로 논란 많은 아람코IPO 대신, 국영 석유화학회사 SABIC를 아람코에 매각하며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NEOM 건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골자였습니다
- PIF는 아람코 IPO를 통해 약 \$1,000억의 현금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화학 시황의 호조세가 이어지며 SABIC의 시총도 \$1,000억원에 도달하게 되어, PIF가 보유한 지분 70%를 아람코에 넘겨도 IPO로 얻는 현금과 유사한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 그런 추측이 일정 정도는 현실화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유력 통신은 아람코의 IPO가 최종 취소되었다고 보도했네요

보도직후 신디케이트론으로 \$110억을 조달하는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IPO’ 대신 ‘대출’로 자금줄 확보...110억달러 조달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 대신 국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PIF)가 110억달러의 신디케이트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략) FT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80억달러 대출을 희망했으나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대출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약 16개 은행이 대출에 참가할 전망이다. (중략) IPO를 사실상 포기한 아람코는 PIF가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화학업체 사빅(SABIC)의 지분 인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략)

자료 : 이데일리(2018년 8월 24일), SK증권

- 물론 지금까지 SK증권 리서치센터가 view를 견지해 온 대로, IPO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 당국의 의견입니다. 아람코의 의장(chairman)이자 사우디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인 칼리드 알팔리(Khalid Al Falih)는 IPO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 허나 지난 5/28 Energy Snapshot에서 분석했던 알팔리 본인이 이미 IPO 연기 가능성에 대해 말했고, 현재 자문단 해체설까지 돌았다면 조만간 상장 될 가능성은 이제 많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 국부펀드(PIF)는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110억 조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SABIC 지분 매각도 곧 이뤄진다는 소식까지 연결됐구요. 결국 그림은 어느 정도 나왔네요
- 유가상승이 싫은 트럼프, IPO 의지가 옛어진 사우디, 증산에 무게두는 러-미-사우디. 결국 6/25 Energy Snapshot에서 밝힌 대로 이제 지정학적 유가상승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